



◀작은나눔 큰기쁨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시작된 올해는 환경운동의 정착과 봉사활동의 저변확대를 이룬 해로 평가된다. 각종 사회 종교단체들의 캠페인을 통해 크게 실효를 거두었다. 또 대형사고 현장 봉사활동은 합계사는 사회 만들기의 토양을 다졌다. 특히 교계는 르완다·미얀마·캄보디아 등의 난민돕기도 활발해 세계가 함께하는 운동으로 펼쳐졌다.

지혜·자비 현장

‘사랑의 방송’ 개국

1백만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랑의 소리 방송’이 12월20일 개국됐다. ‘희망의 소리 밝은 내일’을 캐치프레이즈로 하루 10시간 방송된다. 자비가 숨쉬는 이 방송의 주요내용은 복지 취업 등 장애인 정보프로그램과 재활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 다양한 사회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마련돼 장애인에 귀를 기울인다.



▲세계의 보배로

예술로 승화된 불교신앙의 결정체인 석굴암(국보 제24호)과 해인사말판대장경(국보 제152호)과 배달민족의 기상과 정신이 깃든 종묘(사적 제125호)가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됐다. 12월6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네스코 산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위원회 제119차 총회에서 공식등재된 세건의 보물은 우리 문화유산이 세계적 보배임을 확인시켰다.

또 한해가 저물고 있다. 끔찍한 대형사고, 온 국민을 경악시킨 전직 대통령의 부정부패, 군부 구테타의 진상 밝혀가... 줄이어 터져 나온 사건 사고로 올 한해도 국민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아 했다. 그런 가운데 민족의 자긍심 높이기와 세계화, 금융실명제 등이 우리 사회의 또다른 희망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지혜롭고 자비심 넘치던 일들과 탐진치의 업장이 빛을 피할 수 없는 업보의 현장을 사진과 함께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주>

‘95 사진으로 본 ‘피안과 苦海

탐욕의 진흙서도 연꽃은...



▲두 대통령 구속 전대통령 노태우씨가 5천억여원의 대형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수감(10월16일)되고 마침내 법정까지 갔다(1차 12월18일). 또 ‘5공비리’로 백담사 유배생활을 했던 전두환 전대통령도 12·12와 5·18과 관련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12월3일). 이 두 사건은 해를 넘기는 가운데 한번 뿌려진 죄의 씨앗은 반드시 벌이란 이름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엄중히 가르치고 있다.



▲‘삼풍’ 붕괴·‘대구 폭발’

삼풍백화점이 6월29일 무너졌다. 이에 앞서 4월28일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도시가스 폭발했다. 무너진 백화점 속에서 5백1명이 사망하고 9백3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실종자도 30명이나 된다. 대구가스폭발로 1백명이 목숨을 잃었다. 무고한 생명을 잇따라 날벼락과도 같은 사고로 인문과 사회적 신뢰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들 사고는 우리 사회의 부패한 업장들이 얼마나 무섭게 버티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검은 바다

7월23일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좌초돼 남해바다에 온통 죽음의 그늘로 뒤덮였다. 어장이 기름범벅이 되고 매일 수만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야 했다. 다시 청정해역이 되기 위해서는 20년~1백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진단이다. 방심과 탐욕이 마침내 바다 종생의 생명을 무더기로 앗아간 이 사건 이후에도 남해에서는 기름유출 사고가 계속 이어졌다.

송년칼럼 오직 뭉쳐야 사는 것을

— 광복 50돌 세모에 생각한다

광복 50돌의 해를 보내며 새삼 ‘분열의 구도(構圖)’를 생각해 본다. 우리는 어쩌면 이다지도 갈라져 갈라져서 민족인가.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형이 지정학적(地政學的)으로 이같은 상태를 빚어내게 하는 것인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가 대립하고, 지역별로 또 맞서고, 정치투쟁으로 사생결단을 내고, 명분 싸움으로 이진투구가 된다. 그러나 곰곰히 돌아보면 이러한 분열의 구도는 지난 50년 사이에만 펼쳐진 것은 아니다. 마한·진한·변한의 삼한시대에 이어진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 아니, 가야까지 보면 4대세력의 대결구도는 기원전서부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7세기 후반까지 되풀이 되어왔다.

낙동강 유역에서 뛰어난 재질 및 철기 제조 기술로 번성한 가야제국이 어쩌서 허술한 연맹체로만 있었는지 또한 수수께끼다. 가아는 왜 통일국가를 형성치 않았는가. 그것도 분열됐던 것이었는가. 분열은 멀리 고조선 건국 이전서부터 시작된다. 단군 탄생에 얽힌 신화가 그것을 암시한다.

일연의 <삼국유사> 권제1 기이권(紀異篇) 고조선 대목은 <고기(古記)·(단군고기)를 발할>을 인용, 다음과 같은 고사를 전해주고 있다.

옛날 환웅이 3천명을 거느리고 신시(神市)로 내려왔는데, 거기엔 범 한마리와 곰 한마리가 같은 굴 안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졸랐다. 환웅은 속 한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되리라’ 했다. 곰은 이 말을 잘 지켜 삼칠일(21일)만에 여자로 변신할 수 있었으나, 범은 지키지 못해 사람이 되는 데 실패했다. 여자가 된 곰 즉 웅녀는 환웅과 혼인, 아들 단군왕검을 낳는다. 그가 조선국의 시조다.

한편 중국의 ‘위서(魏書)’에 의하면, 단군은 요왕(堯王)과 같은 시기에 아사달에 도움을 청하고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불렀다 한다.

뼈아픈 분열의 교훈

<동국통감(東國通鑑)>은 이 단군 즉위의 해를 기원전 2천3백33년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단기 4천3백28년이 되는 셈이다.

이들 옛 기록을 통틀어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는 조선을 북방 어딘가에서 온 단군의 조상 일족과, 곰으로 상징되는 토착 부족간의 통합으로 이뤄낸 나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 범으로 상징되는 또 하나의 부족은 그후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나라와 중국 옛 문헌엔 <예맥(濊貊)>이란 낱말이 자주 등장한다. 때로는 ‘예’와

‘맥’이 따로따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맥은 ‘고대중국 북북방에 살고 있었으며 한(韓)민족의 근간이 되었다(『새국어사전』)’고 알려져 있다.

예맥은 하나인가, 아니면 따로 구별되는 존재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계의 오랜 쟁점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예맥은 원래 하나였다. ‘같은 굴 안에 살고 있었다’는 <삼국유사>의 기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곰으로 상징되는 맥(貊)이 단군일족과 통합하면서, 범으로 상징되는 예(濊)는 따로 떨어져나갔다. 하나의 연맹체였을 예맥은 이때부터 예와 맥으로 나뉘어지게 이른다.

다시 통합된 옛조상

8세기초에 간행된 일본 역사책 <일본서기>와 <고사기(古事記)>는 그 첫머리 부분에 한편의 고대가요를 실고 있다. ‘야구무다르(夜句多死)……’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이 노래를 일본학자들은 그새 로만화한 사람의 가요로 해독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말로 읽으면, ‘야와 구무가 다투어 구무가 이겼다’는 노래로 떠오른다. ‘야’는 ‘예’를 지칭하는 일본 고대어, ‘구무’ (구마·구모·고마·고모라고도 불렀음)는 ‘맥’을 가리킨 일본 옛말이다.

조선국 건국 때 따로 떨어져 나간 예는 요즘의 중국 북동부의 동방으로 이동하다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남하, 일선으로 진출했다. 이 선주(先住) 세력인 예를, 뒤따라 간 맥이 공격하여 이겼다는 것이 노래의 내용이다.

노래의 작자는 맥계 제철집단의 리더로 여겨지고 있는 스사노오(素戔嗚). 이 인물은 야사기신사(八坂神社)라는 서당에 의해 크게 받들어져 왔다.

‘야사카’란, ‘예와 섞였다(통합했다)’는 뜻의 우리 옛말을 일본식으로 표기한 차차문(借字文). 비록 싸움을 했을망정 예맥은 일본 땅에서 다시 하나가 된 것이다.

섬은 백성을 한 덩어리로 뭉치게 하는 풍토인가. 좋은 의미에서나 나쁜 의미에서나 일본인들의 단결심에는 놀라운 데가 있다. 그 응결한 응결력을 대할 때마다, 우리 땅에선 갈라지고 일본 땅에선 뒤흠친 예맥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갈라져 갈라져 맞서는 지금의 슬픈 세태를 보면, 광복 50돌이요 동시에 한·일 국교정상화 30돌이요 해 세모(歲暮)에 하나의 독백을 읊듯하게 된다.

— 오직 뭉쳐야 사는 것을!

<약력>

△이화여자 영문과 졸업(1964년). △한국일보 문화부장 논설위원, 11대 국회 의원,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장 등 역임. △‘또 하나의 만남’을 읽는 모임’ 회장.



이영희 (작가)

1996학년도 동국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특차, 전기)

길을 찾는 젊은이가 이르는 그 곳—동국대학교!! 참교육, 열린 큰교육을 실천하는 동국대학교가 한국의 내일을 이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Table with columns for University, Department, and Enrollment Quota. Includes sections for '서울 캠퍼스' and '경주 캠퍼스'.

Table for '서울 캠퍼스' showing enrollment quota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Business Administration, Law, and Education.

Table for '경주 캠퍼스' showing enrollment quotas for departments like Business Administration, Law, and Education.

Table for '전원형 모집' showing enrollment quotas for departments like Business Administration, Law, and Education.

■전형일정

- 서울·경주 캠퍼스
•특차
•입시일자 '95.12.28
•원서교부 기간 '95.12.19~12.26 (09:00~17:00)
•원서접수 기간 '95.12.25~12.26 (09:00~17:00)

■전기

- 입시일자 '96.1.18
•원서교부 기간 '95.12.19~96.1.6 (09:00~17:00)
•원서접수 기간 '96.1.3~1.6 (09:00~17:00)

■원서교부처

- 서울 캠퍼스: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02) 260-3031, 260-3032-4
•경주 캠퍼스: 780-714 경북 경주시 석강동 707번지 (0561) 770-2031, 770-2032-4

■교육제도를 개혁했습니다

-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3년만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재학기간내에 복수전공이수로 3개취위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입학한 후에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타대학교와의 교류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타교 이수 학점이 인정됩니다.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습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